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Service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이 용 재(Yong-Jae Lee)**
배 화 숙(Hwa-Sook Bae)***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욕구
2.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
Ⅲ.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2.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Ⅳ.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연결망 분석
1.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상황과 사회서비스 욕구
2.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제공체계 연결망
Ⅴ. 결론 및 제언

초 록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상이 여성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연구가 긴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한 문제별, 출신국가별, 거주지별로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에서 그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과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 사회서비스, 사회연결망분석, 정보접근성

ABSTRACT

A female marriage immigrant 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group as Korea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they get various supports to become a part of our Korean society, and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are really important things to give them such supports effective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problems that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ing in their marriage life and a process of adaptation in Korea. This research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classified by the problems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facing, their nationality, and their residen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research provided the ways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services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also optimize social services for them.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Service, Social Network Analysis, Information Accessibility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부)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411-J0110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lyj5384@pusan.ac.kr)(제1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lovenshare@dreamwiz.com)(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11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www.kci.go.kr

Ⅰ. 서 론

우리 사회에서 2002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이주노동자의 유입증대와 더불어 다문화시대로 진입하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가 점증하는 가운데 도농경계를 넘어서 국제결혼 확대가 가시화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쟁점화 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의 다양한 부처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준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논의를 확대시킨 주된 요인은 역시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하여 한국사회가 가진 특수성으로서 서구사회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사회 도래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기점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절대 수는 여전히 증가일로 있는 결혼이민자 수는 2008년 9월 현재 120,705명이며 그 중 여성이 88%를 차지하고 있다.[1] 특히 아시아 출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90%가 여성 결혼이민자이며, 이는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대륙 출신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라면 남편인 경우가 절대 다수인 것과 비교되는 점이다. 즉 전체 여성 결혼이민자의 95.4%가 아시아 출신이다.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은 전체 여성결혼이민자의 28.5%이며,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출신 국가로는 중국 26.3%, 베트남 24.1%, 필리핀 5.2% 순이다.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뛰어 넘는 차원으로서, 잠재적 문제에 대한 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관련한 연구들이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직면한 문제와 서비스의 필요성을 논한 연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정책적 대안 제시 등으로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 증가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련한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적 대안제시의 토대가 되는 실증적인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 혹은 그의 가족을 위한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률 및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책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은 잠재적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인용 2008. 11 .11].

www.kci.go.kr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이민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혹은 새로운 가족관계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은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국적취득을 통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영구적으로 거주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결혼이민자의 입국기간 혹은 적응의 단계별로 문제와 문제해결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결혼생활과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및 정보를 어디에서 구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의 실태와 차이를 분석하고 둘째, 결혼이민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정보의 제공자 간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결혼이민자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내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는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국적취득 요건을 연계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 다문화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이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인권 보호 및 사회적응 지원,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관련 논의와 사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인 인적자원과 사회서비스 기관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1.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욕구

여성 결혼이민자와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연구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들의 문제를 다루거나[2] 여성 결혼이민자가

2)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문경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www.kci.go.kr

겪는 삶의 체험을 통해 사회통합과정의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3]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논한 연구[4]와 셋째, 최근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회전반에 걸친 '다문화' 담론의 확산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5]이 있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한국사회에 원만히 통합되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먼저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혜경은 다문화가족 서비스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6]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은 일반가족과 달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로 언어와 의사소통의 문제, 가정폭력, 사회시스템 이해 부족,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사법권 및 행정기관에의 접근성, 귀화시험의 어려움, 문화적 갈등,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김경미·김현지·김옥경의 부산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실태조사 결과 결혼 후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로는 의사소통 문제, 남편 가족의 간섭과 강요, 경제적 문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폄하, 차별과 관련된 자녀문제를 들었다.[7] 법무부 발간 국내결혼이민자 현황 데이터를 토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의 문제를 연구한 김이선·정해숙·김영주는 여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언어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접근성이 제한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3호(2006. 3), pp.67-93; 이혜경,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모형," 다문화가족연구, 평택대특성화사업단(2007. 4), pp.217-231; 이용승, "독일의 다문화 가족정책," 민족연구, 통권 제31호(2007. 9), pp.113-128.

3) 이상화, 김은실, 허라금, 지구화 시대의 현장여성주의(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7).

4)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혜경,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2005), pp.73-106; 심인선 등, "경남의 여성결혼이민자 및 지원현황," 경남발전연구(2007); 주경미, 김현지, 이옥경, 부산시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정책 방향(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06); 한건수, 설동훈,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김희선,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분석," 민족연구, 통권 제31호(2007. 9), pp.50-85.

5)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복순, 차보현,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2006), pp.109-134; 양애경 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조석주, "다문화 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2007), pp.3-46; 문순영,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제72권, 제1호(2007), pp.109-142; 설동훈, 윤홍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2호(2008), pp.109-133.

6) 이혜경,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 모형," 다문화가족연구(2007), pp.226-227.

7) 김경미, 김현지, 김옥경, 부산시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정책방향(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006), pp.32-42.

www.kci.go.kr

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 구사의 어려움은 자녀양육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8]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요구 순위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5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한국요리, 취업교육훈련, 한국문화, 컴퓨터・정보화 교육 순이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25.4%로 가족관계 상담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요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9]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취업 관련 욕구가 높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10] 현재 취업중인 이들의 88%가 향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며, 미취업자인 경우도 93%가 향후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들의 취업 장애요인은 노동시간, 자녀 양육부담, 외국인에 대한 편견 등을 들고 있다.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이 취업에 대한 제약점으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경남지역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사회복지요구도 조사결과[12]에서는 생계비 또는 생활비의 요구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과 아동을 위한 부모 상담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이민자 자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에서는 역시 한국어 교육이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요리 교육, 컴퓨터교육, 자녀양육 지도방법의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성원들이 결혼이민자라는 특수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외국의 사례들에서 제시할 수 없는 다양한 논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한국어 소통이나 한국문화의 이해 필요, 자녀교육과 학부모로서의 역할교육의 문제,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함, 구직 활동 혹은 취업 문제 등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알려진 것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족간 갈등 문제가 있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인정과 관련 정보교류 등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결혼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높은 반면 이들의 사회적 지지망 형성, 복지증진 관련 사업, 법률 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출신 문화 교류 등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구의 세 번째 경향으로서 한국사회 통합에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다문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공동체의 형성 혹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제시하는 연구이며,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이 출신국이나 지역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들이다.

김형수는 복잡다기한 다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8)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농림부, 2008), pp.32-34.
9) 상게서, p.44.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에서 내국인에 비해 취업률도 매우 낮으며, 취업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욕구가 한국어 교육 다음으로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과, 2008.5.)
11) 이혜경,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이주정책의 상호보완 가능성: 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2005), pp.57-60.
12) 심인선 외, 경남 여성결혼이민자 및 지원 현황(경남발전연구원, 2007).

www.kci.go.kr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문화정책 공동체'의 형성을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란 특정분야와 관련된 정책 관련 집단들에게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연계하여(networking)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며, 정책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나 개인을 통제가 아닌 설득에 의해 관리한다.[13] 이를 다문화정책의 주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자 관련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정책을 펼치는 중앙의 다양한 부처들 간의 협력, 공공기관보다 먼저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제공하고 있었던 다양한 민간 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 구조 혹은 모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이주민들의 출신지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문화정책의 내용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굳이 '동화주의적' 다문화 관점 때문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의 대상에 대한 충실한 이해 없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어져 왔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다문화공생을 논하는 연구[1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지원부서 설치, 외국인 종합지원센타 운영 등 능동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라 소수집단에 의한 다문화 사회 형성에 있어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강휘원의 연구[15]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다문화가족의 적응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중요한 인적자원이 되는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수용성 연구가 있다.[16] 지역주민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의식, 지원에 대한 태도 등 지역사회 수용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인적자원으로서 결혼이민자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친다문화적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구성원의 상호관계성 증진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는 파악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정부 각 부처 및 민간기관들의 정책과 지원은 출발단계에 있으며, 다문화 관련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김형수, "한국 다문화 정책공동체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2008), pp.136-138.
14) 조석주,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방안: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2007), pp.3-46.
15) 강휘원,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다문화가족연구(2007), pp.1-29.
16) 양애경 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www.kci.go.kr

2.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접근성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서비스 혹은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로서 결혼이민자들의 접근성 성격을 보여주는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이선・정해숙・김영주의 연구[17]에 의하면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도시 결혼이민자에 비해 모임이나 교회 등에서 가깝게 지내는 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이들은 농촌지역 거주자의 경우 75.1%가 같은 국가 출신자들과 친밀한 반면, 한국인 친구에 대해서는 53.9%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도시거주자들이 한국인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것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농촌 거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도시 거주자에 비해 높은 반면, 가족문제 상담 및 지원체계와 취업교육 등에 대한 정보는 도시지역 거주자들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지원을 위한 조사결과[18]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농사일과 아동양육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일차적인 이유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결과는 친구나 이웃의 유무에 대한 답변에서 거주기간이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자조모임 등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설동훈・윤홍식의 연구[19]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지원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진척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입국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출신국가별로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사회경제적 적응이 다름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출신국가별로 욕구수준, 경제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에서도 서로 다르며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적응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혹은 정보접근성의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남편을 만나는 방법 즉 결혼과정의 차이가 반영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혜경의 연구[20]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및 중국한족은 친척, 친구 등의 소개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60%이상인데 비해, 일본은 종교단체를 통하는 것이 절대 다수인 92.1%이다. 필리핀 출신의 경우도 종교단체를 통하는 것이 40.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변인을 통한 소개, 결혼중개업체 순이다. 이에 비해 베트남은 결혼중개업체가 5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17) 김이선, 정해숙, 김영주,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농림부, 2008), pp.38-41.
18) 박재규, 이윤애,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전북발전연구원, 2005), p.122.
19) 설동훈, 윤홍식,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2호(2008), pp.109-133.
20) 이혜경,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과 이주정책의 상호보완 가능성: 이주여성 문제를 중심으로(법무부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보고서, 2005), pp.54-55.

www.kci.go.kr

큰 차이라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논의한대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 부처별로 정책을 기획하고 이 정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양한 공급 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정책정보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서비스 전달 기관은 주민자치센터와 교육청과 같은 공공행정기관, 정부의 확대지원 하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 지원을 맡고 있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보육시설과 종합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공공행정이 개입하기 이전부터 이들을 지원해온 종교기관, 이주여성상담센터와 같은 NGO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문화사회 내에서 도서관이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더불어 이주민 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모국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이[21]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연구에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주요 지원 환경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결혼이민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남편과 그 가족, 모국인 친구, 한국인 이웃, 타국 출신 결혼 이민자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의 서비스 및 정보 접근성을 논하기 위해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인적자원으로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물론 공공에서 제공되는 사회보장을 통한 지원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인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민간과 공공을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로는 결혼이민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민간단체, 남편과 이웃 등 인적체계로 한정하였다.

1. 자료 수집

조사 대상은 국내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 중 부산과 경남도내 시, 군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모집단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비확률 표집을 시도하였다.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는 유의표집을 위해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기관들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예비

21) 조용완,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3호(2008), pp.2-3.

www.kci.go.kr

조사 2회와 결혼이민자 대상 프로그램 담당자 및 NGO 활동가의 조언을 거쳐 완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인적사항 부분을 포함하여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여 완성하였고,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배포하였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및 영어 통역자를 동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거주지 특성을 반영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을 구분하여 관련기관들에게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뢰한 기관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지역사회복지관, 가족 상담소, 인권센타 등으로서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의뢰하는 자들에 대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4일에 걸쳐 이루어졌고 부산과 경남 거주자로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자가 주를 이루었다. 총 13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1부를 제외하여 총 136 사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가족과의 정보교류 및 한국에서의 생활만족도 등 결혼이민자의 입국 및 현재 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서비스 욕구 및 의뢰 부문에서는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우선순위, 서비스를 얻기 위해 정보를 요청 할 곳을 질문하였다. 결혼이민자 지원 서비스기관 및 인적자원 간의 연계망을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수혜 경험 있는 기관에 대해 문항을 작성하였다.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서비스 기관 및 인적 자원간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해 준연결망 자료를 구성하였다.

결혼이민자가 사회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및 자원체계를 분석하고 이들 간의 연결망 밀도와 중심성을 분석하는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22]을 위해 SPSS 14.0 및 NetMiner를 이용하였다. 연결망의 밀도는 참여자들간에 관계가 맺어지는 정도로 연계망의 지표가 된다.[23] 밀도는 행위자들 사이의 가능한 모든 관계에 대한 실제로 이루어진 관계의 비율로 측정이 되며 0~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요청 혹은 정보 요청 의뢰 등을 통해 평가되었다.

연결망의 중심성은 연결망 속에서 개별 기관들의 위치를 밝히는데 이용되는 지표로서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연결망의 중심성은 서비스 연계망 속에서

22) 사회 연결망 이론은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인간행위와 사회구조의 효과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특성은 일정한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연계(linkages) 전체의 특성으로 연계에 포함된 사람들의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은 연결망 이론의 설명 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각 개인의 상호 작용의 연결망은 행위를 통해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 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박영사(2004), pp.26-27). 또한 네트워크의 효과는 정보획득효과와 지원효과로 집약된다. 정보획득효과란 관계망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 여기서 정보라는 것은 필요한 자원들도 포함된다. 지원효과란 관계망에 의해 맺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조언 및 충고 등의 효과를 말한다(손동원, 사회 네트워크 분석, 경문사(2008), pp.9-11).

23)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경문사, 2008), p.12.

www.kci.go.kr

각 기관들이 어느 정도 활발한가를 나타내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등으로 나타낸다. 연결중심성은 다른 점들과 얼마만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점이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계량화한 것인데, 연계망 구성체계 속에서 행위자의 적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연결정도가 높은 기관이 중요 기관이 된다.[24] 근접중심성은 한 점이 다른 점에 얼마만큼 가깝게 있는가를 말하는 개념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핵심적 개념이며, 네트워크 전체의 총체적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윤곽 하에 중심성을 파악할 수 있다.[25] 매개중심성은 한 점이 얼마나 다른 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느냐를 측정하는 개념이다.[26] 매개중심성이 높은 체계는 관계망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여러 체계들 간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Ⅳ. 사회서비스 및 정보의 연결망 분석

1.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상황과 사회서비스 욕구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2008년 3월 현재 경기도와 서울에 여성결혼이민자의 48%가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경상남도(6%)이며, 광역시 중 인천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은 여성결혼이민자의 4.6%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열 명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과 경남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48.5%, 필리핀 27.2%, 중국 22.8%이었다. 실제 결혼이민자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신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나 기관 이용자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필리핀 출신은 프로그램과 관련기관 활동에서 더 높은 참여도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응답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53%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8.8%, 40세 이상도 7.5%였다. 결혼기간은 1년 미만이 24.2%이며,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프로그램 참여자 혹은 내담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혼을 통해 입국한 초기에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고,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참여도가 낮다가 8년 이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

24) 이인숙,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위기개입서비스 연계망 모형 개발(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4), p.123.
25) 연결중심성의 경우 어떤 한 점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는 점들을 고려하지 못하며 국지적인 로컬영역의 중심성에 한정되는데 비해, 근접성은 연결중심성에서 간과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총체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 하에서 중심성이 측정된다고 볼 수 있다(이인숙, 전게서, p.129).
26) 손동원, 전게서, p.95.

www.kci.go.kr

은 입국초기에 서비스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다기보다는 결혼기간이 지속되면서 자녀교육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9.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 24.1%, 대학 졸업 15.8% 초등학교 졸업 10.5%였다. 자녀수는 응답자의 44.1%가 1명이라고 응답하였고, 자녀가 없다에 29.4%, 2명이다에 25.0%가 응답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상황

	항 목	N	%		항 목	N	%
출신국	중국	31	22.8	연령	-19세	1	0.7
	필리핀	37	27.2		20-29세	71	53.0
	베트남	66	48.5		30-39세	52	38.8
	기타	2	1.5		40세 이상	10	7.5
	합계	136	100.0		합계	134	100.0
결혼기간	1년 미만	31	24.2	거주지	광역시	54	39.7
	1년 이상 3년 미만	45	35.1		시	54	39.7
	3년 이상 5년 미만	24	18.8		군	28	20.6
	6년 이상 8년 미만	9	7.0		합계	136	100.0
	8년 이상	19	14.8	최종학력	무학	2	1.5
	합계	128	100.0		초등학교	14	10.5
자녀수	없다	40	29.4		중학교	32	24.1
	1명	60	44.1		고등학교	52	39.1
	2명	34	25.0		전문대학	10	7.5
	3명 이상	2	1.5		대학교 이상	23	17.3
	합계	136	100.0		합계	133	100.0

결혼과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구성한 각 시기별로 다른 서비스 욕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한국사회로 초기진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사회적응 단계에서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적응기간을 거쳐 사회정착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와 같다. 서로 다른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한 것은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단계에 따라 서비스 욕구도 다를 뿐 아니라 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게 될 사회 기관이나 인적자원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진입단계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케이스의 82.3%)이었고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에 대해 46.9%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응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자녀교육비 혹은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에 62.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상자의 48.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정착단계에서는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에 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엇보다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취업관련욕구에 대해 67.2%가 응답하여 가족문제 상담 혹은 문화생활 지원

www.kci.go.kr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결혼 이민자의 사회서비스 욕구(중복 응답)

	서비스 내용	응 답		케이스의 %
		N	%	
초기진입 필요서비스	한국어교육	107	41.8	82.3
	국적취득을 위한 안내	33	12.9	25.4
	생계비 지원	36	14.1	27.7
	지역사회 기관이용을 위한 정보, 안내	19	7.4	14.6
	가족관계 이해를 위한 교육	61	23.8	46.9
	합계	256	100.0	196.9
사회적응 필요서비스	의료비 지원	62	25.8	48.8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	19	7.9	15.0
	자녀교육비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79	32.9	62.2
	출산 전후 가정봉사 서비스	42	17.5	33.1
	학부모로서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38	15.8	29.9
	합계	240	100.0	189.0
사회정착 필요서비스	한국문화 이해 교육	96	39.3	75.0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86	35.2	67.2
	가족문제 상담	41	16.8	32.0
	문화생활 지원	5	2.0	3.9
	주택수리 등 주택관련 서비스	16	6.6	12.5
	합계	244	100.0	190.6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사회복지관, 도서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 및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표 3〉에서와 같이 응답자의 74.6%가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하였다. 시간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서 방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각각 22.0%, 20.3%였다. 가족이 기관 방문에 대해 반대하거나 본인이 용기가 없어서 방문하지 않았다에 각각 9.3%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 대상 서비스 제공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관임에도

〈표 3〉 공공 및 민간 기관 등 방문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응 답		케이스의 %
	N	%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88	40.6	74.6
거리가 멀어서	24	11.1	20.3
시간이 없어서	26	12.0	22.0
용기가 없어서	11	5.1	9.3
가족 반대	11	5.1	9.3
방문할 필요가 없어서	34	15.7	28.8
기타	23	10.6	19.5
합계	217	100.0	183.9

www.kci.go.kr

여전히 결혼이민자들에게 인지도가 낮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인적체계들이 오히려 서비스와 기관의 이용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미리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제공체계 연결망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이 서비스 지원에 대해 가장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국어 소통 및 한국 문화이해의 어려움, 부부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간의 갈등 문제, 자녀의 학습지도 및 학부모로서 역할의 어려움,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및 정보를 요청하는 곳으로 먼적 사회적 체계라는 것은 동사무소와 구청 등 공공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사회복지시설, 종교기관, 시민단체, 도서관 및 인터넷 사용공간으로 범주화하였고, 인적체계로서 남편 및 남편친척, 모국출신 친구, 타국출신 친구, 한국인 이웃으로 분류하였다. 결혼이민자들이 이들 체계에게 서비스를 받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등의 접촉 경험을 자료화하여 연결망 분석을 하였다.

가. 문제별 사회서비스 및 정보 제공체계 연결망 분석

한국어 소통 및 한국문화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요청한 체계인 10개 노드의 연결수(link)는 88이었다. 연결망 밀도는 0.978로 거의 모든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고립된 체계는 없으며, 연결 중심성에서 시민단체 및 타국출신 친구(0.89)를 제외하고 모든 체계가 동일한 중심성(1.00)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소통 및 문화이해 관련한 서비스 연결망에서 근접성 지수는 0.980이며, 근접중심성은 시민단체와 타국출신 친구를 제외하고 모두 1.000으로 동일하며 근접성의 편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매개중심성 지수는 0.003이며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남편 및 남편친척, 한국인 이웃, 모국친구 등이 미약하나마 매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체계는 시민단체, 타국출신친구로 나타났다.

부부간 혹은 가족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요청을 받는 10개의 체계에서 연결 수(link)는 42였다. 연결망 밀도는 포괄성 90%에 지수 0.467로 평균 4.2개 노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0.889)이며, 복지시설 및 모국출신 친구가 각각 0.667, 종교단체와 남편 및 남편 친척이 각각 0.556 순이었다. 가족간 문제해결과 관련한 체계의 연결망에서 고립된 체계는 타국출신 친구였다.

가족문제와 관련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체계의 연결망에서 근접중심성 지수는 평균 0.582이며,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였고(0.889), 복지시설 및 모국출신 친구(0.771), 행정기관, 종교단체, 남편 및 남편 친척, 한국인 이웃(0.447)이 그 다음 순이었다. 매개중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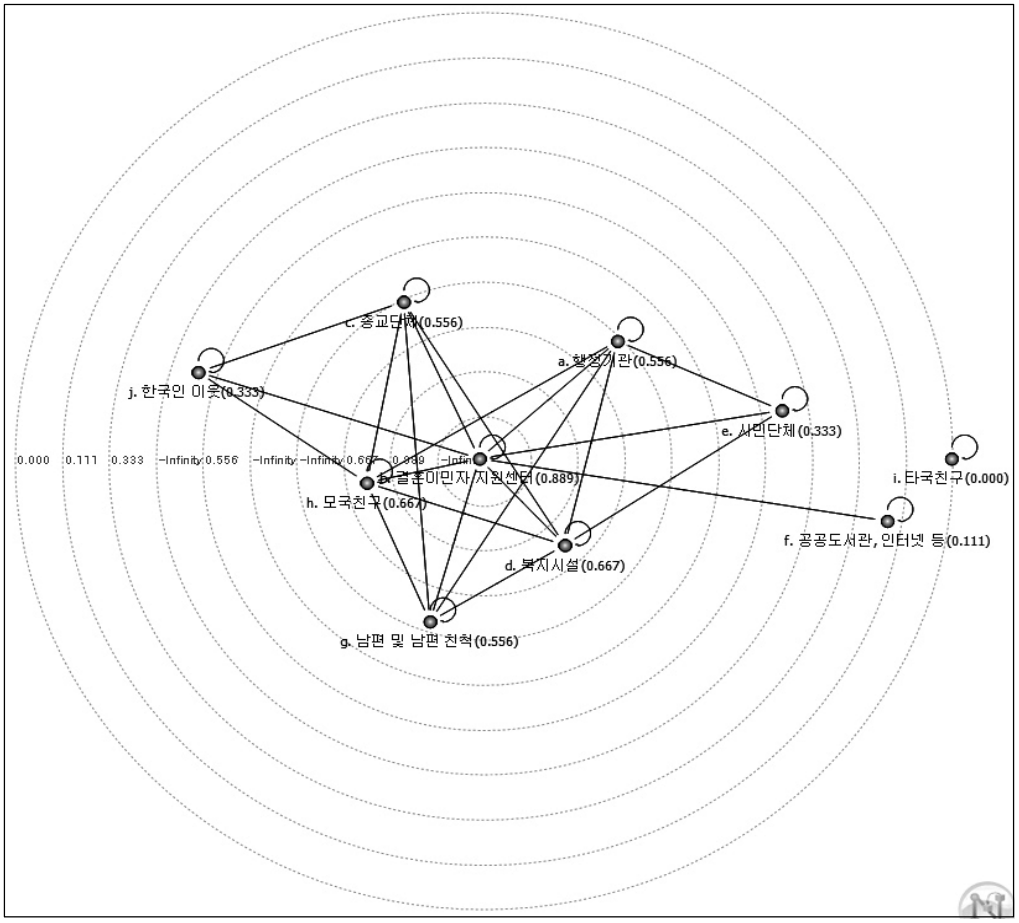
〈표 4〉 문제별 사회서비스 기관 및 인적체계의 연결망 차이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1. 한국어소통	1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친척, 한국인 이웃	1.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친척, 한국인 이웃	1.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0.003
2. 가족간 문제	1	결혼이민자지원센타	0.889	결혼이민자지원센타	0.889	결혼이민자지원센타	0.294
	2	복지시설 모국친구	0.667	복지시설 모국친구	0.711	복지시설 모국친구	0.039
3. 자녀 지도	1	복지시설	0.889	복지시설	0.900	행정기관	0.236
	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0.778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0.818	복지시설	0.122
	3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0.071
4. 취업 문제	1	모국친구	1.000	모국친구	1.000	모국친구	0.333
	2	공공도선관 및 인터넷	0.667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750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102
	3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0.556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0.69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0.042
5. 의료시설이용	1	남편 및 남편친척, 모국친구	1.000	남편 및 남편친척, 모국친구	1.000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0.236
	2	행정기관	0.778	행정기관	0.818	행정기관	0.056
6. 모국생활정보	1	남편 및 남편친척, 모국친구	0.889	남편 및 남편친척, 모국친구	0.900	모국친구	0.148
	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한국인 이웃	0.778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한국인 이웃	0.818	남편 및 남편 친척	0.111
	3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083

심성 지수는 평균 0.042였으며 가장 높은 매개성을 가진 체계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0.294)였으며, 복지시설과 모국출신 친구(0.039), 종교단체 및 행정기관(0.019)이 미약하게나마 매개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매개성을 전혀 가지지 않은 체계는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타국출신 친구, 한국인 이웃 등이었다. 한국어 소통 문제관련보다는 체계간 연결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족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던 체계가 적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자녀와의 갈등과 같은 가족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들은 다양한 측면을 반영해야 하며 다른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통한 문제 예방과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자녀의 학습지도, 유치원 및 학교생활 적응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의 연결망 밀도는 0.600이며 링크 수는 54이며 고립된 체계는 없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표 4〉에서와 같이 복지시설로 0.889이었으며 다음 순으로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모국출신 친구, 그리고 한국인 이웃으로 중심성이 각각 0.778이었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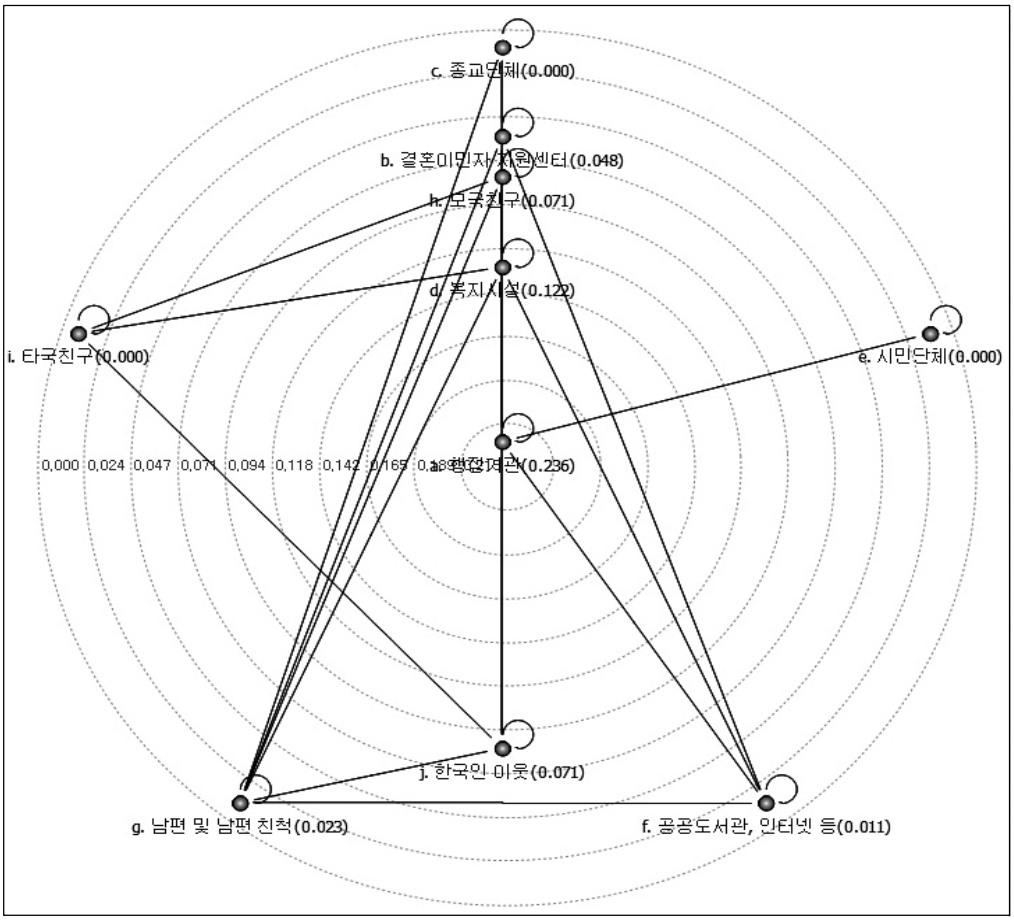


〈그림 1〉 가족간 문제관련 체계의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복지시설(0.900)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결혼이민자지원센타가 근접중심성이 높았던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며, 자녀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기관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은 체계는 모국출신 친구, 결혼이민자지원센타, 한국인 이웃으로서 그 지수가 각각 0.818이다. 한국인 이웃이 중심성이 높은 것도 한국어 소통이나 가족문제 상담 등 다른 문제의 경우와 차이를 보여준다.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곳은 행정기관이며 다음으로 복지시설,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순이었다.

구직활동 및 취업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의 연결망 밀도는 0.511이며 링크 수는 46, 고립된 체계는 없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모국출신 친구로 지수가 1.000이었으며 다음 순으로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667,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가 각각 0.556이었다. 서비스와 정보 제공체계에서 근접중심성 지수는 0.687이었으며 가장 높은 중심성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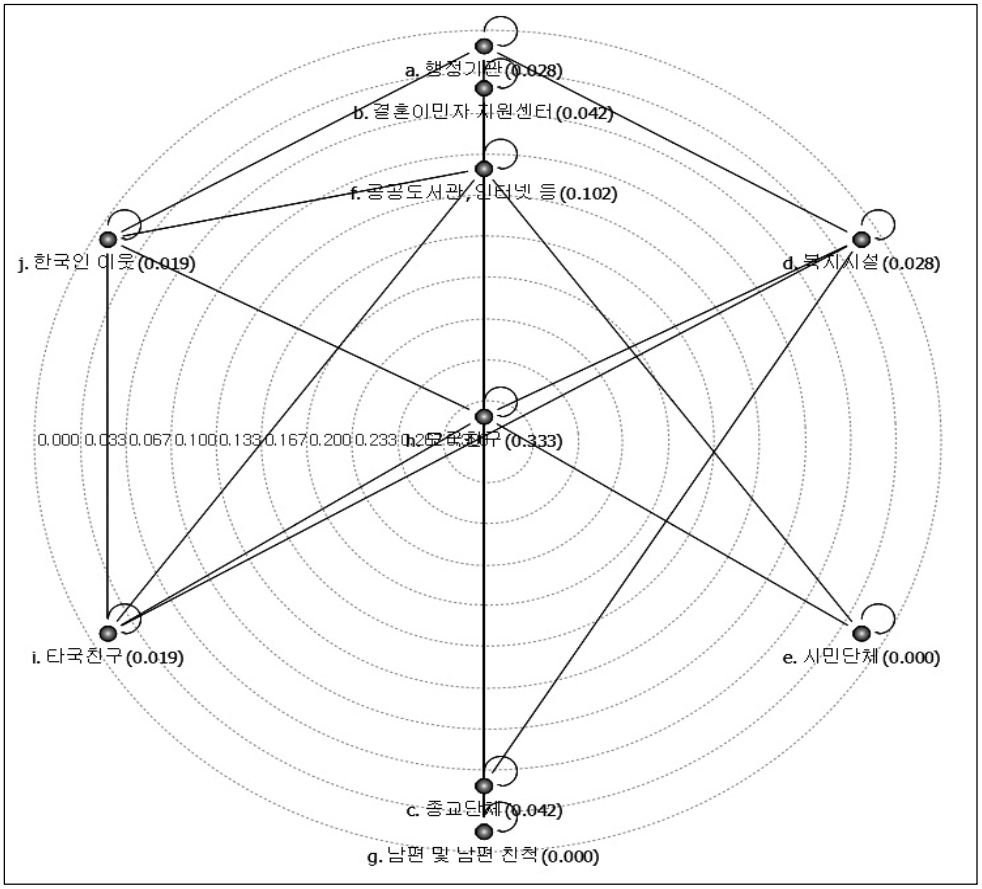


〈그림 2〉 자녀교육 문제관련 체계의 매개중심성

을 나타낸 체계는 모국친구였으며,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사용공간(0.750), 결혼이민자지원센타와 종교단체가 각각 0.692로 높았다.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체계간의 매개중심성 지수는 평균 0.061로 비교적 약한 편이며, 이들 중 가장 높은 매개성을 가진 체계는 모국친구가 0.33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102로 그 뒤를 이었다. 취업과 관련하여 정보 및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앞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결혼이민자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기관들이 취업과 관련하여 매개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직활동 및 취업생활과 관련하여서 시민단체와 남편 및 남편 친척은 매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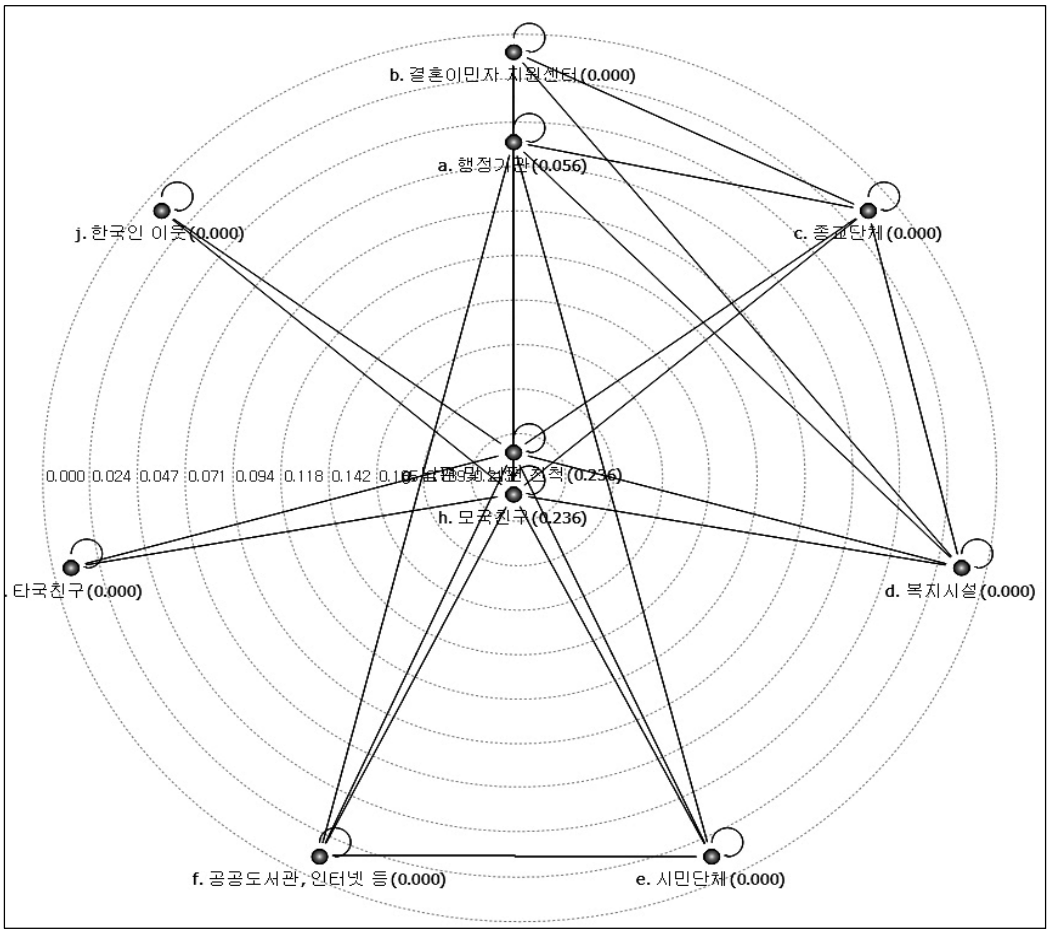
〈그림 3〉 취업 및 구직문제 관련 체계의 매개중심성

병원 및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의 연결정도를 보면 연결망 밀도는 0.578이며 링크 수는 52이다.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출신 친구로 각각 지수가 1.000이었고 다음으로 행정기관 0.778이며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이 각각 0.556이었다. 남편과 모국출신 친구가 의료시설 이용문제와 관련하여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현상은 해당문제의 성격인 서비스 지원의 긴급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들이 연결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의료시설 이용관련 정보와 서비스에서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출신 친구로 각각 지수가 1.000이었으며 다음으로 근접성이 높은 체계는 행정기관 0.818이며 결혼이민자 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이었다. 타국출신 친구 및 한국인 이웃 등이 상대적으로 근접중심성이 낮았다. 매개중심성은 그 지수가 0.053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 중 가장 높은 매개성을

www.kci.go.kr

가진 체계는 〈그림 4〉에서와 같이 남편 및 남편 친척과 모국출신 친구 0.236, 다음으로 행정기관 0.056이었다. 그 외의 여타 체계는 매개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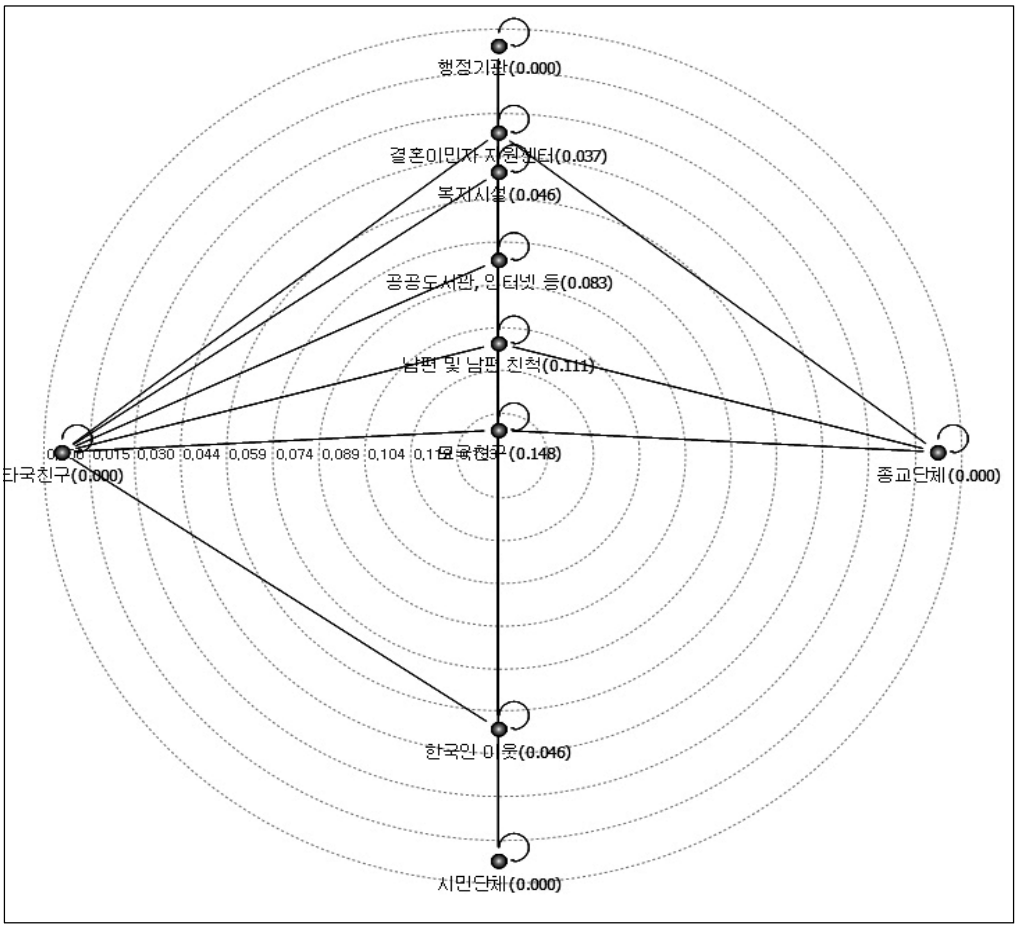


〈그림 4〉 의료시설 이용관련 체계간 매개중심성

모국과 관련된 생활정보와 관련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의 연결망 밀도는 0.644이며 링크 수는 58이다. 고립된 체계는 없으며 연결망 밀도가 다른 문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국출신 친구 및 남편과 남편 친척이 연결중심성 0.889로 가장 높았고 행정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연결중심성이 낮았다. 이는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다문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동화주의가 아닌 방향으로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으나 모국관련 서비스 제공처의 중심역할에서는 오히려 비공식적 체계에 비해 그 기능이 약하다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www.kci.go.kr

모국과 관련된 생활정보를 제공체계의 근접중심성은 평균 0.751이며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진 체계는 모국출신 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0.900)이었다. 매개중심성 지수는 0.047이며 가장 높은 중심성을 가진 체계는 모국출신 친구 0.148이었으며, 남편 및 남편 친척 0.111,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사용공간 0.083 순이었다. 매개중심성을 가지지 않는 체계로 행정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이다. 이를 통해서 볼때 각종 서비스 기관을 통해 얻는 정보와 정보요청 내용은 한국생활 중심임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모국정보 관련 연결망 분석임에도 매개기능에 있어서 남편 및 남편 친척의 중심성이 크다. 행정기관, 시민단체 등이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 문화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출신 모국에 대한 정보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설정이 필요하고,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기관 및 인적체계들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모국관련 정보 및 서비스 체계간의 매개중심성

www.kci.go.kr

나. 응답자 차이에 따른 서비스와 정보 제공체계의 연결망 분석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적별로 그리고 이들의 거주 지역에 따른 정보접근성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와 정보 제공체계의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들이 각 문제별로 정보와 서비스를 요청하는 곳이라고 지적한 수를 합산하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1) 출신국적별 차이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결혼이민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도 응답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 국가 출신이다. 각국출신 결혼이민자들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체계의 연결망 분석 결과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각 체계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연결중심성에서는 각 체계들이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과 필리핀이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순으로 중심성이 높았으나 베트남의 경우 남편 및 남편 친척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모국친구 순이었다.

〈표 5〉 출신국적별 사회서비스 기관 및 인적체계의 연결망 차이

출신 국적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중국	1	모국친구	24.444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1.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014
	2	남편 및 남편 친척	15.222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한국인 이웃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3	결혼이민자지원센타	12.222				
베트남	1	남편 및 남편 친척	41.889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0.889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0.009
	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37.000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타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타국친구	
	3	모국친구	30.000				
필리핀	1	모국친구	30.333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1.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008
	2	남편 및 남편 친척	28.000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3	결혼이민자지원센타	26.222				

중국출신자 응답의 경우 체계에서 매개중심성을 가진 기관은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 친구, 한국인 이웃 등이 동일한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단체,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이 매개중심성이 없는 것에 비해 필리핀 출신 응답자의 경우 종교단체와 복지시설이 매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출신의 경우 복지시설은 매개성이 있으나 종교단체는 전혀 없었고, 중국출신 집단의 경우 한국인 이웃이 매개 중심성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 및 필리핀 출신자들의 응답 결과에서는 한국인 이웃이 매

www.kci.go.kr

개 중심성이 없었다. 이는 대표적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한국인 이웃과의 정보 교류 등에서 출신 국적별로 접근성의 성격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출신 응답결과와 달리 베트남 출신 응답자들의 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연결망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전체 연결밀도가 중국 0.933, 필리핀 0.956인 것에 비해 베트남은 0.756으로 가장 낮다.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이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정보 및 서비스를 요청한 정도가 적고 아울러 서비스를 요청함에 있어서 대상체계가 다양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거주지역별 차이

먼저 연결밀도를 살펴보면 광역시 0.956, 시지역 0.756, 군지역 0.933으로 밀도는 시 지역에 있는 서비스와 정보 제공체계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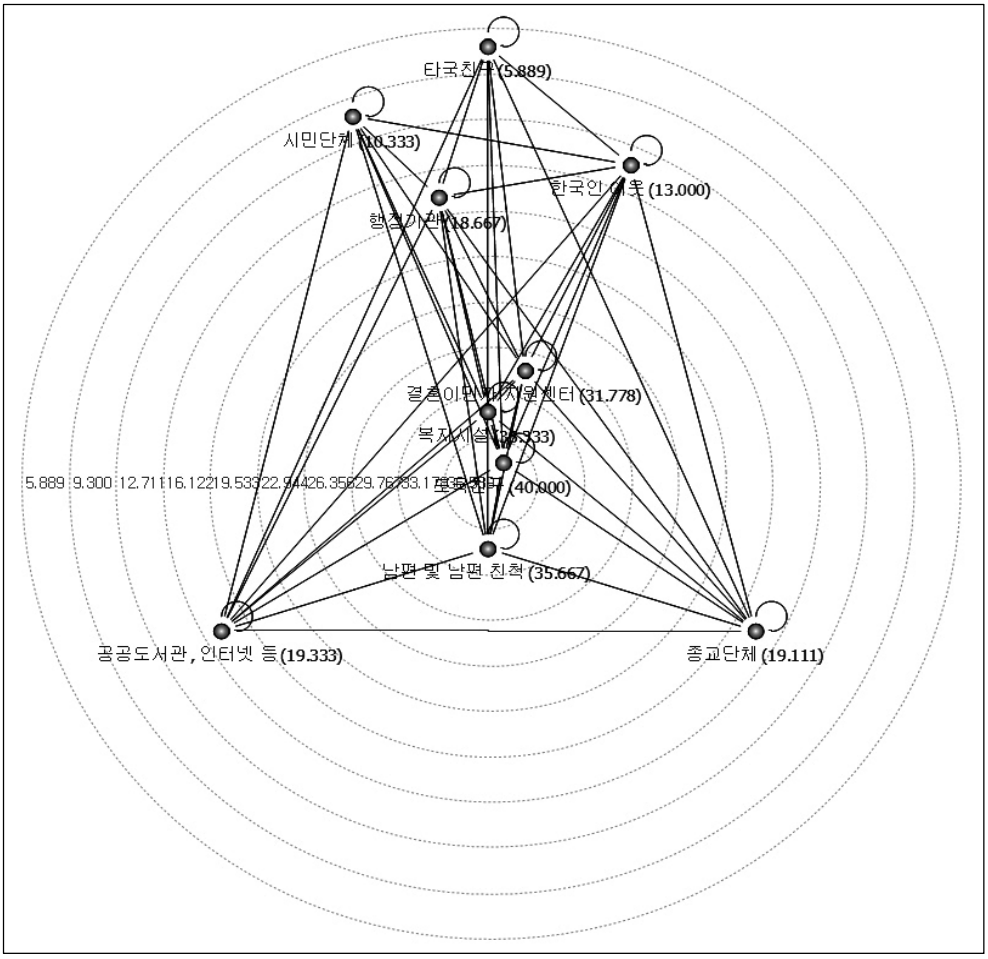
〈표 6〉 거주지역별 사회서비스 기관 및 인적자원 연결망 차이

거주지	순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기관 및 인적자원	지수
광역시	1	모국친구	40.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1.000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008
	2	남편 및 남편 친척	35.667				
	3	복지시설	35.333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한국인 이웃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한국인 이웃	
시	1	남편 및 남편 친척	28.111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0.889	행정기관,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복지시설	0.009
	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21.000				
	3	모국친구	17.889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타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타국친구	
군	1	모국친구	27.111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1.000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종교단체, 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0.014
	2	결혼이민자지원센타	22.889				
	3	남편 및 남편 친척	22.222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친구	

광역시를 살펴보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복지시설,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순이었다. 매개중심성의 경우 종교단체, 시민단체, 타국 친구가 매개성이 없으며 나머지 체계들은 미미하나마 동일한 매개중심성(0.008)을 가지고 있다.

광역시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결 밀도가 낮은 시 지역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간 정보와 서비스 교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접중심성의 경우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매개중심성의 경우는 종교단체,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인터넷, 한국인 이웃 등이 매개중심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시민단체가 고립 노드라는 측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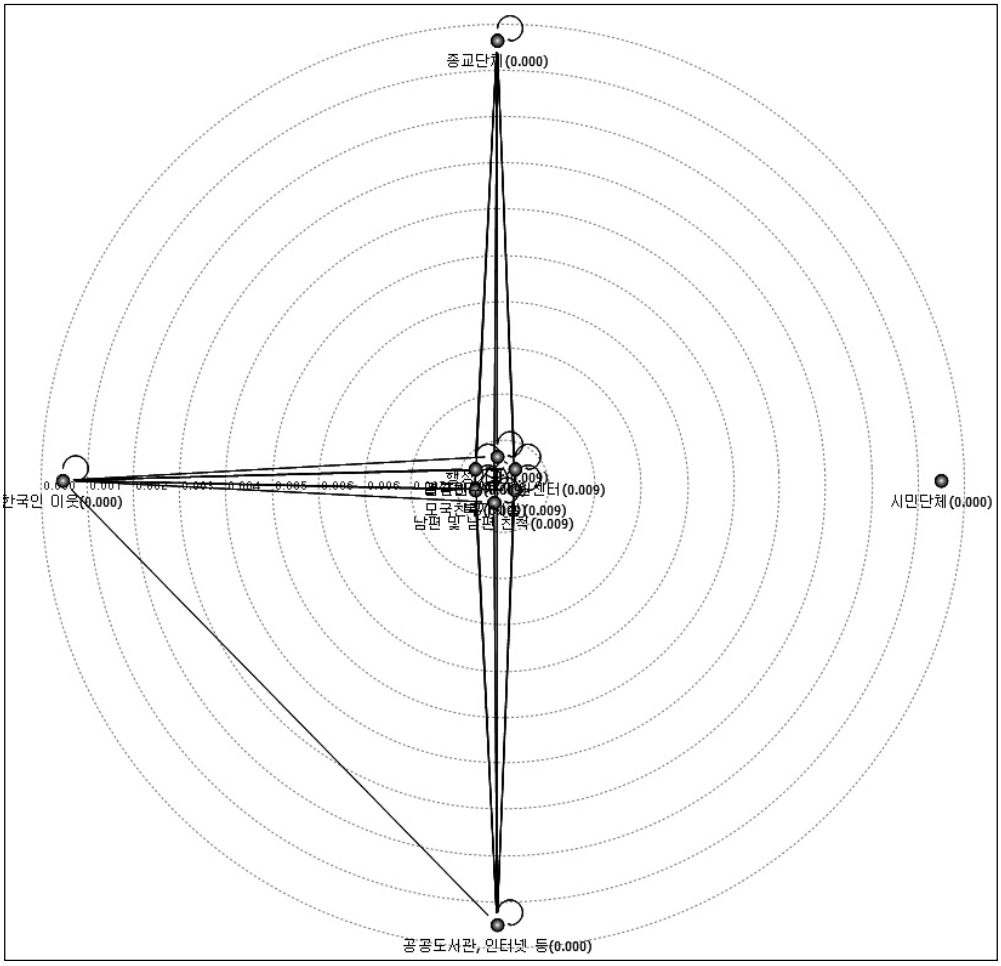


〈그림 6〉 연결중심성 - 광역시

과 종교단체의 경우 연결정도가 높음에도 매개중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주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남편 및 남편 친척의 경우도 매개중심성에서는 다른 기관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도 향후 정책개발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다.

군지역의 특징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대상이 모국친구(27.111)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지원센타, 남편 및 남편 친척 순이다. 모국친구가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광역시 거주자와 동일한 결과이나 광역시는 다음 순이 남편 및 남편 친척인데 비해 군지역은 다음으로 높은 중심성을 가진 기관이 결혼이민자지원센타라는 점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보다는 모국 친구 혹은 관련 기관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남편 혹은 친척이 정보 제공 혹은 서비스 연결자로서의 기능을 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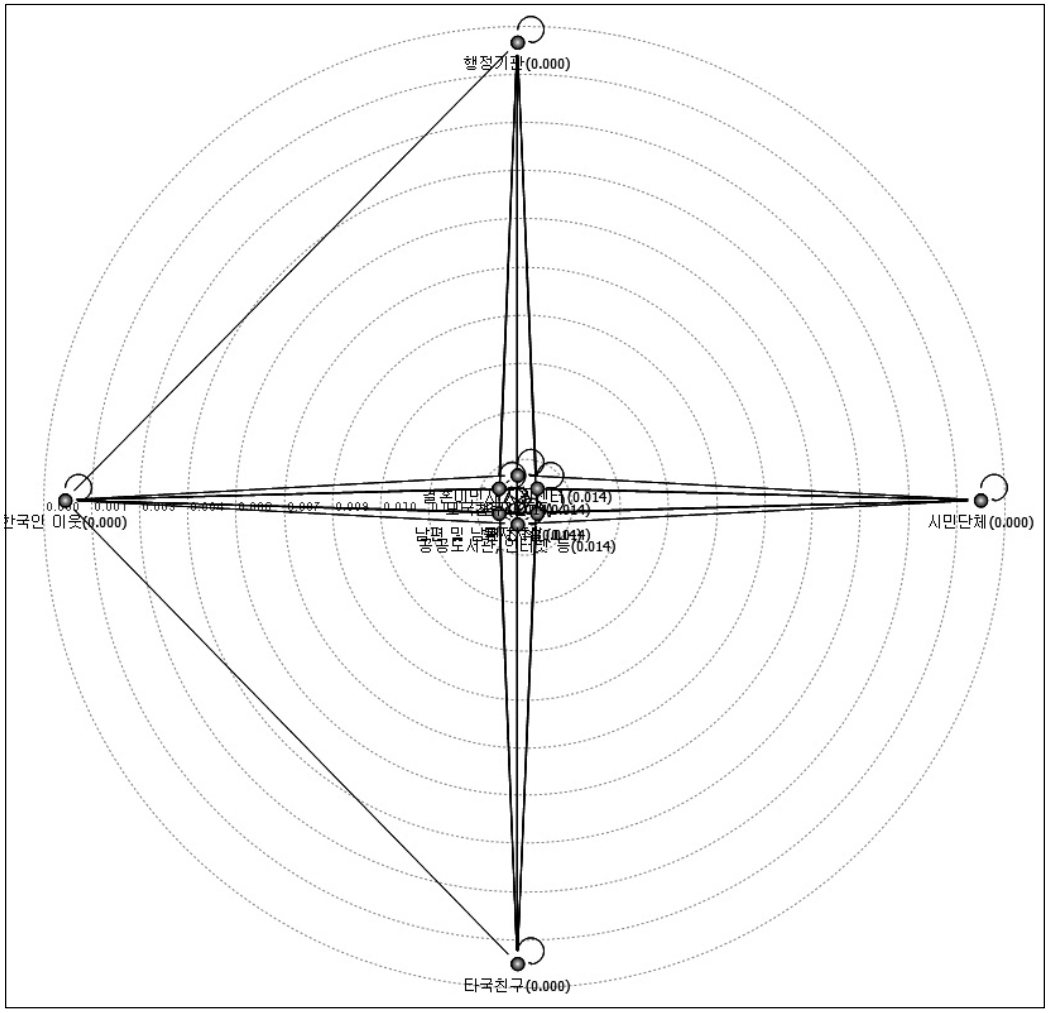
www.kci.go.kr



〈그림 7〉 매개중심성 - 시지역

군지역의 매개중심성을 보면 한국인 이웃과 타국출신 친구,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중심성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 기대하였던 행정기관, 한국인 이웃 등이 매개중심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그림 8〉 매개중심성 - 군지역

V. 결론 및 제언

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이 결혼생활적응, 사회서비스 욕구파악, 당면한 문제 중심 논의로 이루어진 반면, 이 연구는 서비스와 정보를 요청하는 주체로서 결혼이민자가 어떤 체계에 대해 접근성이 높은 지를 파악하고자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공공·민간을 포함한 사회체계와 인적체계들 간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입국 이후 한국사회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종류가

www.kci.go.kr

다를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대상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문제별로 결혼이민자가 응답한 서비스와 정보를 요청하는 체계간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학습 및 소통문제에서는 모든 체계들이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간 문제에서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결혼이민자지원센타였고 다음으로 복지시설, 모국출신 친구 순이었다. 매개성을 전혀 가지지 않는 체계로는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및 인터넷, 타국출신 친구, 한국인 이웃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요청받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체계간의 연계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매개중심성이 높은 체계는 행정기관, 복지시설, 모국출신 친구 및 한국인 이웃 순이었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사회적응단계에서 직면하는 자녀교육문제에 대하여 체계에서 중심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관련 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취업 관련 욕구가 높은 것에 비해 서비스와 정보 제공체계들이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매개적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병원 및 의료시설 이용 문제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체계는 남편 및 남편 친척, 모국출신 친구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심성을 가지지 못한 사회 기관들의 역할 확대와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모국과 관련된 생활정보에 대해 모국출신 친구 및 남편과 남편 친척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았고 행정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연결중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식적 체계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다.

출신국적별로 연결망 차이를 보면 근접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체계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연결중심성에서는 체계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국과 필리핀이 모국친구, 남편 및 남편 친척, 결혼이민자지원센타 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았으나 베트남의 경우 남편 및 남편 친척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연결밀도는 베트남출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아 다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에 비해 정보 및 서비스를 요청한 정도가 적고 아울러 서비스를 요청하는 체계도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역시에서 연결중심성은 모국친구가 가장 높았고, 시와 군에서 순위에 들지 않았던 복지시설의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왔다. 시의 경우 남편 및 남편 친척이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았고, 종교단체,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인터넷, 한국인 이웃 등이 매개중심성이 전혀 없었다. 연결중심성이 높은 남편 및 남편 친척의 경우 매개중심성에서는 다른 기관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들이 개인적 자원과 비공식적 지원체계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사회서비스 기관 등 공식적인 체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다양한 체계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

www.kci.go.kr

지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연착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개인적 문제와 증상 해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데는 그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응에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기존 공적체계에서의 지원에서는 이들이 가진 특수성을 배려해야 하며, 실제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공존해야 할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을 낮추고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기관은 문제의 다양성에 대해 포괄적인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사회로의 통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체계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결망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서비스와 정보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근접중심성이나 매개중심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체계들이 문제에 따라서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대상의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서비스제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심역할뿐 아니라 매개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연결중심성 혹은 근접중심성이 높았던 남편 및 남편 친척 혹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와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한국인 이웃에게까지 필요한 서비스 및 정보를 확대하고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은 가족과의 안정된 생활을 넘어서서 사회참여의 욕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현재 이들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소통, 한국 문화 이해 등을 교육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서 학부모로서의 역할 학습,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등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정착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와 욕구 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적절한 정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신국적별로 혹은 거주지별 차이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자가 부산·경남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이 매우 다양함에도 이들을 다 포괄하지 못한 점이 한계이다.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질적연구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서비스 욕구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가족이 직면하게 될 자녀교육의 문제, 사회참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과 거주지역 그리고 정착단계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한국사회 정착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 또한 추후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식· 비공식 체계들의 협력과 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 연구 또한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www.kci.go.kr